▮ 문순태 칼럼

설, 황토빛깔처럼 질박한 고향축제

을미년 남도의 설은 윤달 때문에 봄과 함께 손잡고 왔다. 어느덧 순천 금둔사 납월홍매(臘月紅梅) 꽃망울이 도톰하게 맺히고 무등산 뒷자락 골짜기에는 복수초 잎이 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남쪽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한결 다사로워졌다. 마을마다 '귀성 환영' 플래카드가 펄럭이는가 하면, 텅 비어있던 공터에는 자동차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찼다.

노인들만 외롭게 남아 을씨년스러웠던 집에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름진 음식냄새가 솔솔 담을 넘는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다.

올 설에는 예년에 비해 귀성객이 한껏 늘었다고 한다. 삶이 고달플수록 고향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절절한 탓일까. 동구 밖 느티나무 밑에 까치발을 딛고 서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 꽃처럼 활짝 핀다. 아무리 귀성길이 멀고 고달플지라도, 고향으로 향한 마음은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처럼 포근하고 순결하다. 조상과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한 민족의 대이동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행렬이 아닌가.

세상은 숨 가쁘게 변하지만 고향의 호젓한 모습은 그대로이다. 늙은 당산나무며, 마을 앞 오래된 정자, 조붓한 고샅과 낮은 돌담, 흉물스러운 폐교, 허물어져가는 빈집 ,질컥거리는 마당, 처마 밑 장작더미, 녹슨 농기구 등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변화 없는 모습에 한탄할 필요는 없다.

고향은 우리들의 본디 마음이며 양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모습이 더 값지고 애틋하다. 세배 행렬, 때때옷 설빔, 북장고 놀이 문화는 사라졌지만 가족중심의 정은 예나 다름없이 도탑다.

주변을 둘러보면 변한 것도 있다.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들 덕분에 오랜만에 아기울음소리가 들리고 노란 통학버스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효과로 광주인구가 해마다 늘어 이제는 150만에 육박하고 있다.

개관을 앞 둔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용이 국립공원 무등산을 가리지 않으려고 납작하게 엎드린 듯 드러나고, 여수 엑스포 현장, 순천 정원박람회 등이 조성되어, 고향의 색깔이 조금씩 밝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도의 설은 전라도길 붉은 황톳빛깔처럼 질박하고, 판소리 육자배기 가락처럼 구성지고 신명난다.

소외되고 퇴락한 듯하지만, 만나서 정겹고 어우러져 흥겨운 아날로그식 고향축제. 남도에는 아직 두레살이 원형인 대동세상의 미덕이 남아 있다. 그래서 조상과 부모형제, 함께 살아왔던 이웃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의 빛깔도 무채색이다. 오랜만에 격의 없이 정담을 나누고 푸짐한 음식과 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열정을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또 고향에서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빛나는 희망이다.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부부의 마음은 무지갯빛 희망으로 타오른다. 그러나 기다림보다는 찾아가는 마음이 더 행복하다.

고향은 영혼의 안식처다. 철학자 하이데카의 말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은 고향을 상실한 디아스폴라인지도 모른다. 농경사회에서처럼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삶을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 이들은 부초처럼 정처없이 떠돌다가 설날 고향에 돌아와 삶에 지친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 타향에서의 삶이 고단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이다.

고향은 존재론적 공간이고 시간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이상세계다. 잊을 수 없는 유년의 기억들이 퇴적해 있는 그리움의 창고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생물학적인 탄생이라면 고향에서 태어난 것을 지리적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고향은 같은 이미지가 된다.

21세기를 피로사회라고 한다. 성과주의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모두가 피로에 지쳐있다.

특히 욕망과 불안의식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전쟁 치르듯 살아온 도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도 마음도 피폐되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설날, 나를 에두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자. 모두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해온 늙은 부모와 나의 피와 살이 되어준 고향집 마당과 텃밭, 평화와 안식을 심어준 산과 들, 냇물과 숲을 넉넉한 마음으로 쓰다듬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고향은 비록 가난하고 남루하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우리 마음자리가 오롯이 숨 쉬고 있는 고향에서 설을 맞아, 쌓인 피로와 때 묻은 마음을 정갈하게 씻고 나면, 다시 활력을 얻어 새 삶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설가〉

교통약자 가장 불편한 도시 '광주'

노약자·장애인 보행환경·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최저
특별교통수단·교통행정은 양호…배려도시 1위 '인천'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다니기에 가장 불편한 도시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국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과 이동연계성에서 각각 1위에 올랐지만 이동편의시설(5위), 접근로 보행환경(6위), 저상버스 보급률(5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61.7점으로 최하위(6위)에 머물렀다. 광주는 지난 2012년에도 전국 최하위였다.

인천은 이동편의시설 교통 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에서 1위에 올라 종합점수 80.8점으로 1위를 기록, 전국 대도시 중 교통약자를 가장 잘 배려하는 도시로 조사됐다.

도시철도를 제외한 전국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광주는 특별교통수단보급률과 교통 행정은 각각 1,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이 낮게 나타나 종합점수는 63.7점으로 전국 6위에 머물렀다.

서울은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 여객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등에서 가장 높은 82.1점을 받아 1위에 올랐으며, 울산은 59.7점으로 꼴찌였다.

한편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는 2013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78만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접근로 보행시설 등의 기준 적합률은 73.2%로 2012년(71.3%)보다 1.9% 올라갔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98.2%)가 가장 높고 노후선박이 많은 여객선(17.1%)이 가장 낮았다.

여객시설별로는 철도역사(82.2%), 공항터미널(82.2%) 등은 기준적합률이 높았지만 버스터미널(51.5%), 버스정류장(47.3%) 등은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항공기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은 60점으로 최하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354만명 '민족 대이동'

전년보다 16% 증가…18일 오전·19일 오후 가장 혼잡

민족 최대의 대명절인 설(19일)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의 지역간 이동 인원은 3354만명. 하루 평균 559만명(17일~22일까지 6일 평균)으로 지난해 설에 비해 15.7%(456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설 연휴는 유난히 길어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귀경길이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다만 귀경길인 21일과 22일엔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승용차를 이용한 귀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54만6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6% 증가한 것이며 평일보다는 43.7%, 주말보다는 24.1% 많은 것이다.

귀성차량은 18일 오전, 귀경차량은 19일 오후에 각각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승용차 기준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길이 서울~광주 6시간40분, 서서울~목포 7시간40분으로 추산됐다. 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7시간10분.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통과 이후 광주 TG~동광주 IC까지 약 6~7㎞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정체를 피하기 위해선 순천방향(서광주 IC~문흥 IC·4㎞)은 빛고을로→북광주IC→고창담양고속도로→대덕JCT→호남고속도로로, 천안방향(서광주 IC~산월 IC·4㎞)은 호남고속도로→대덕JCT→고창담양고속도로→북광주 IC→빛고을로로 우회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

섬 귀성객, 신분증 없으면 고향 못간다

전남도, 승선절차 강화…설 특별수송 대책 추진

올 설 연휴부터 여객선 승선 절차가 강화돼 섬 귀성객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고향에 갈 수 있다.

전남도는 16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섬 귀성객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증편 운항하고, 안전 관리요원을 증원하는 등 섬 귀성객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기간이 5일로 길고 해상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8만여명이 섬으로 귀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녹동신항, 나로도항, 홍도항 등 도내 9개 항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또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을 통해 연휴 기간에 투입되는 여객선 증편 운항 시간을 알리고, 한국해운조합 누리집(http : //island.haewoon.co.kr)과 스마트폰 앱의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를 통해 승선권을 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목포와 여수 해양수산청과 협조해 현재 92척이 운항 중인 55개 항로 중 귀성객 혼잡이 예상되는 항로와 시간대에 예비선 7척을 추가로 투입해 총 718회(1일 평균 17회)를 증회 운항할 방침이다. 증선되는 항로는 목포~암태, 목포~가산, 목포~상태서리, 여수~서상, 축정~거문 등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승선 절차가 강화돼 신분 확인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여객선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소방본부는 설 연휴인 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윤현석기자chadol@

연휴 AI·구제역 확산 방지 일제 소독

농림축산부는 연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설연휴동안 귀성·귀경객들에게 구제역과 AI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90개소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연휴기간 확대하고 가축이나 사료 수송차량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하기로 했다.

또 AI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명절기간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하면서 전체 오리농장에 대한 폐사체 검사도 할 방침이다. 설 명절연휴가 긴만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 가축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